

## 대전시, 지자체 최초 데이터 융합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안심구역 · 오픈랩에 이어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까지 구축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 데이터 융합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시는 28일 충남대 정보화본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가명 처리 및 결합하여 연구·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충남대 정보화본부에 연구·의료분야 등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제1호 중부권 지역거점 '데이터안심구역'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빅데이터 오픈랩'에 이은 대전시 데이터 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공

공·민간이 보유한 개인정보 가명 처리 및 데이터 간 결합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설을 갖추고 안전한 환경 제공과 운영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2020년 12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관련 인프라 등 부족으로 지역기업과 연구기관들은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 활용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대전에는 다수의 출연기관, 교육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기술혁신 기업이 있으나, 혁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확보나 이종 데이터 간 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과 융합 촉진,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의 가명 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물론, 바이오 분야 가명 처리 전문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은 지자체 최초로 데이터 안심구역 유치와 빅데이터 오픈랩을 통한 미개방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 등 명실상부 데이터 융합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센터 역할이 단순히 가명 처리를 지원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 충남도민 63% “자치경찰제 안다”

자치경찰제, 지난달 도민 100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제50회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치를 맞아 첫 실시한 '충남자치경찰제 도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 인식도 피아과 앞으로의 치안 정책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온라인(URL)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도민 1007명이 응답한 이번 설

문에는 남성 51.1%, 여성 48.9%가 참여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21.9%), 50대(21.3%), 30대(18.9%), 20대(15.5%) 순으로 집계됐다.

먼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19.9%가 '잘 알고 있다', 43.9%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63.8%가 자치경찰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분야

별 안전 체감도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안전하다'라는 응답이 △ 생활안전 만족도 부문 64.3% △ 사

회적약자 보호 만족도 부문 57.5% △ 교통안전 분야 만족도 부문 50%로 나타났다.

인전 강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별 요소로는 △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 시설물(CCTV, 비상벨 등) 설치(37.5%)' △ 사회적 약자 분야 '피해자 보호 지원 (40.1%)' △ 교통안전 분야 '음주 운전·이륜차 법규 위반 등 주요 사고 원인 행위' 지도·단속 (63.2%)'이 꼽혔다.

앞으로 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자치경찰 분야로는 '생활안전·범죄 예방'이 49.8%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37.5%)', '교통(9.4%)'이 뒤를 이었다.

이종원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통관리 결과 등 자치 경찰 사무 5건을 논의했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선제적 치안 대책 수립 및 교통안전 종합대책 요구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정환기자

할 자치경찰 분야로는 '생활안전·범죄 예방'이 49.8%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37.5%)', '교통(9.4%)'이 뒤를 이었다.

이종원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통관리 결과 등 자치 경찰 사무 5건을 논의했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선제적 치안 대책 수립 및 교통안전 종합대책 요구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정환기자

###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 - clabc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 <리얼미터> 윤 대통령 지지도 38.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11월 4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38.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 (+) 상승한 수치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약 두 달 만에 30% 후반대로 올라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월 4주 차부터 4주 연속 30% 중 반대(35.7%→36.8%→34.7%)→35.6%에 머물렀었는데, 최근 2주 연속 상승 폭선(34.7%→35.6%)→38.1%를 그렸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5%p↑) ▷부산·울산·경남(7.2%p↑) ▷광주·전라(6.1%p↑)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대구·경북(3.0%p↑)과 서울(2.1%p↑)에서도 상승했다. 반면 인천·경기(1.9%p↓)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5%p↓) ▷서울(4.3%p↓) ▷60대(7.0%p↑) ▷40대(6.0%p↓) ▷50대(2.1%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4.0%p↑), 대구·경북(6.3%p↑), 30대(9.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6%p 하락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6.6%p↑) ▷서울(5.5%p↑) ▷부산·울산·경남(4.3%p↑) ▷여성(3.9%p↑) ▷40대(4.8%p↑) ▷60대(4.1%p↑) ▷70대 이상(3.0%p↑) ▷50대(2.1%p↑) ▷보수층(2.6%p↑) ▷중도층(2.4%p↑) 등에서 올랐고, 대구·경북(4.4%p↓), 광주·전라(5.0%p↓) 등에선 하락했다.

정의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4%p 내린 1.1%, 무당층은 0.5%p 내린 10.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마귀창 부주임 등 충남도의회 방문해 협력관계 구축 초석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흥현성 부의장(천안1·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 오인

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귀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광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의 관광지에 방문해 주길 요청드리며,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 산업에 주목하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동성과 장쑤성을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베이성과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회 국정감사는 「현법」과 「국

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른 김주애 후보자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 등에 대해 외교부·통일부장관에게 질증 질의하였다.

정진석 의원은 “당내 쟁쟁한 초재선 의원들도 많은데 중진인 사람이 상을 받아 속스럽다”며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당내 쟁쟁한 초재선 의원들도 많은데 중진인 사람이 상을 받아 속스럽다”며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예산군의회 홍원표 부의장 “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인센티브 필요”

2023년 군정질문… 육아휴직자 및 다자녀 가구 공무원 인센티브 필요성 주장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0.78이里的 낮은 합계 출생율의 원인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 부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맞벌이 가구는 전

체 가구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하의 부부는 절반이 이상이 맞벌이 가구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비율이 같은 시기 외벌이 부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 휴직 활성화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자녀 공무원 승진우대, ▲다자녀 및 출산, 육아 휴직 공무원 퇴임 보직제 활성화, ▲출산휴가 등 여성 공무원의 생애 주기(Life-Cycle)를 고려한 보조 부여, ▲출산·다자녀·육아 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점 부여를 제안했다.

한편, 2023년 군정 질문은 27일 기획실 소관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박제화기자

daejeontoday.com

여성=박제화기자

이정복기자

이정복기자

## 국회도서관, 박희태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3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발간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회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8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ulle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25년간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내리 6선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사위 원장과 한나라당 대표 등要 등을 역임하였다. 박 전 의장은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며 정치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법대로의 국회’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증정식에서 “부드러운 언어로 품격 있는 정치인의 모범을 보이신 박희태 전 의장님은 정치의 근본은 회합이라는 신념으로 지금의 대회와 티협의 국회가 확립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면서, “이 구술집은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의정 사료집으로 후대에 의회 민주주의와 정치 회합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돋우고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초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국회=김성구기자

## 천안시의회 건교위 권오중 위원장 “도시 빙집은 새로운 자산”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일정 돌입



조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에는 도시지역 230호, 농촌지역 239호로 총 489호의 빙집이 있고, 외벽·기둥·지붕 등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여 붕괴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빙집이 도시지역 133호, 농촌지역 140호로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화된 빙집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빙집의 집단적 분포는 천안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주거환경 침체

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빙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안전에 위협이 있는 빙집은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이나 공용 텃밭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빙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하고, “빙집은 단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천안시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다”며 빙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당진시의회 ‘역사·문화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활동 시향점검·향후 계획 논의 위해 최종 보고회 개최



당진시의회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7월 연구모임을 발족한 이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5개월 간의 활동 시향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역사·문화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당진 역사·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간담회 ▲당진 읍성 발굴 토일원 현장 견학 ▲관외 읍성 복원지 현장 견학(나주읍성, 서천읍성 등) 등 당진시

문화도시 체계 구축과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했다.

연구모임의 준회원으로 활동한 장수덕 역사박사는 “시의회에서 당진시 역사문화 발전을 주제로 연구모임을 펼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역사든, 문화든, 건축이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이게 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도시가 발생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향후 방향 설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한편, ▲단계적·장기적인 계획수립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문화재 또는 관광지 방향 수립 ▲문화재로 지정 시 주민 재산상 규제 등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심의수 의원(간사)은 “당진시 역사와 문화 연구를 통한 기틀을 마련하기에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스토리가 있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11월 29일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과에 대한 승인을 진행한 후 2024년도 계획 및 자료 수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유성구의회 사도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요사업 현장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도위 시위원회(위원장 송재만)는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관계자로 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가스 지원화 시설을 차례로 들려보며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지 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환기자

# “융복합 기술교육으로 현장 실무형 AI+X 기술 인재 양성”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대졸자 하이테크과정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박봉순)는 12월 8일(금) 까지 대졸자 하이테크과정 신입생 모집을 대학 홈페이지 (<https://www.kopo.ac.kr/daejeon>)를 통해 진행한다.

대졸자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업(예정) 이상 만39세 이

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액 국비지원 1년 과정으로 학생 부담 금액이 없으며, 교육과정의 50% 이상 이수 시 조기취업이 가능하고, 80% 이상 이수 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생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실습이 80% 이상인 현장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반도체클린룸, 디지털데이터센터, VR제작스튜디오, 영상합성스튜디오, 360 휴먼캐너, 수변전설비 등 여러 현장실무형 교육훈련장비를 통해 산업현장을 사전 경험하도록 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대졸자 하이테크과정 전형 안내 및 학과에 대한 정보는 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daejeon](http://www.kopo.ac.kr/daeje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온라인 입학문의를 통해 자세한 입학 상담이 가능하다.(문의: 042-670-0510-8)

한편 신성장 산업부터 뿌리기술 산업에 이르는 메타버스콘텐츠과, 반도체융합기계과(2024신설), 반도체장비제어과(2024 신설),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영상디자인과, 인공지능과, 전기전자제어과, 클라우드보안과(2024신설) 이상 8개 학과가 운영된다.

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웹프로그래밍,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인공지능 등의 전공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졸업생들은 기업체, 관공서, 군부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영상디자인과는 영상제작 기초 기술인 CG, 편집, VFX, 음향 등 영상디자인 관련 실무 위주의 교과목을 운영하며,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영화, 방송, 디자인, SNS콘텐츠 등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할 창의적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학과이다. 이러한 운영 특성으로 졸업생들은 대전KBS, 연합뉴스TV, CMB 등 전공 관련 기관으로 취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

메타버스콘텐츠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신산업으로 각광받은 메타버스콘텐츠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3D디자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교과목 학습을 통한 메타버스 및 VR콘텐츠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반도체융합기계과는 2024학년도 신설학과로 반도체공정 및 반도체장비를 바탕으로 3D모델링, 반도체장비 및 부품설계, CAM, 반도체공정부품측정 등의 학습으로 설계부터 제작, 측정까지 기술을 갖추어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장비제어과는 2024학년도 신설학과로 반도체제조 공정장비의 유지보수 및 제어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제조공정 및 제조장비에 대한 특화 교과와 자동화 요소기술 교과를 융합하여 반도체제조공정장비의 제작, 설치, 제어, 운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과가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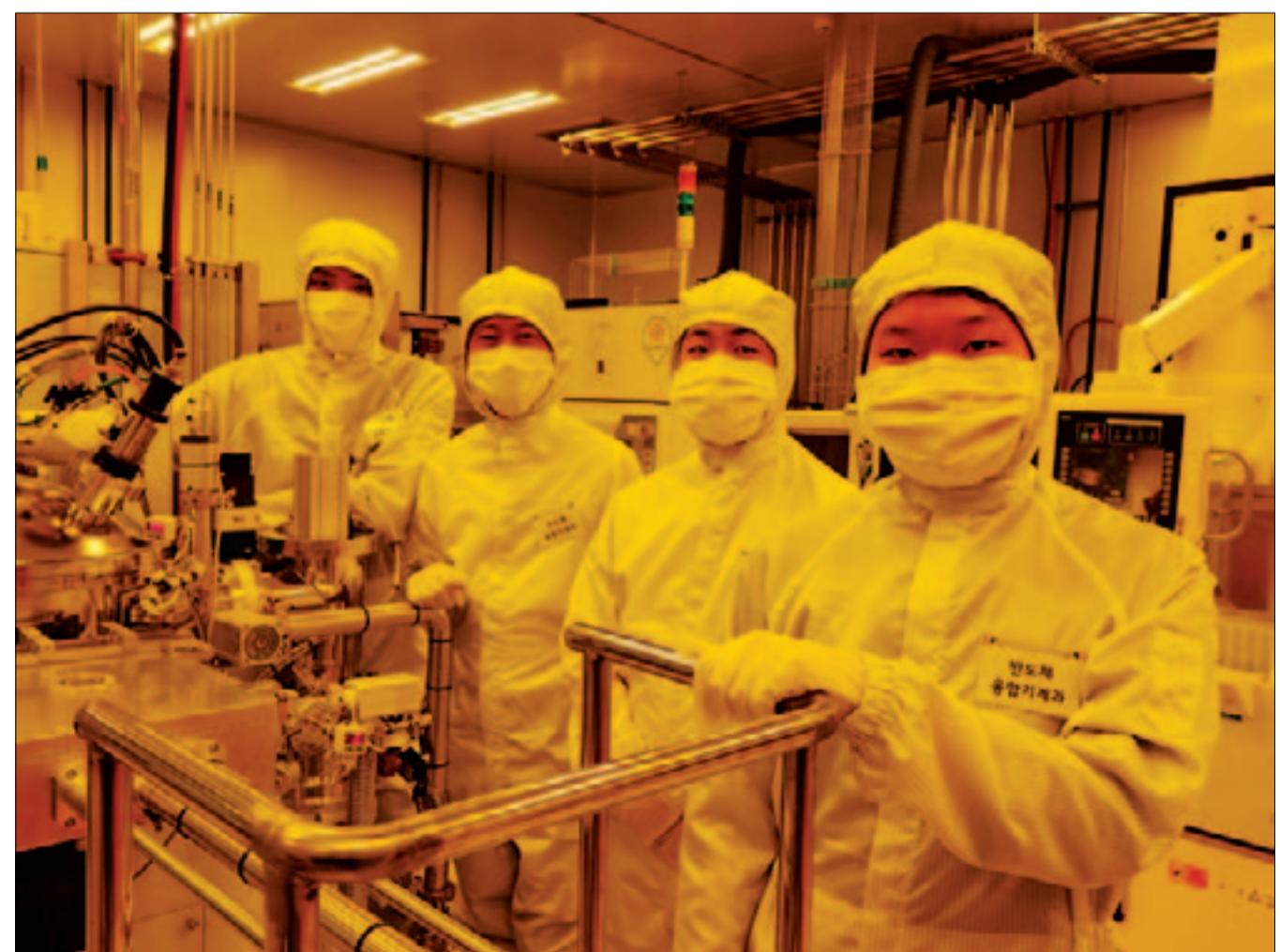
스마트소프트웨어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로 소

인공지능과는 AI기술 강국을 선도하기 위한 학과로서 AI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커리큘럼 운영과 최신 AI장비 구축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SW와 IoT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AI기술 기반의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기전자제어과는 전력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졸업생들은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 입사하여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클라우드보안과는 2024학년도 신설학과로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네트워크보안, 클라우드보안, 해킹 및 침입탐지 등 최신 ICT기반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와 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정정●

역량강화연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9일  
오전 9시 20  
분 KW컨벤션  
센터에서 열  
리는 2023학  
년도 공·사립 유치원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

새마을지도자대회



박희조 동구청  
장= 29일 오  
후 2시 30분  
시청 대강당  
에서 열리는  
2023 대전광  
역사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새마을지도자대회



김광신 중구청  
장= 29일 오  
후 2시 30분  
대전시청 대  
강당에서 열  
리는 '2023년  
대전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김장 나눔 전달식



서철모 서구청  
장= 29일 오  
후 2시 서구청  
광장에서 열리  
는 서구 자원  
봉사센터 김장  
나눔 전달식에 참석.

축제 현장 사전점검



정용래 유성구  
청장= 29일 오  
후 5시 30  
분 운천로 일  
원에서 크리  
스마스 축제  
현장을 사전점검한다.

사무소개소 현판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 29일 오  
전 11시 오  
정농수산물도  
매 시장 복합  
상가동 3층(대  
강당 옆)에서 열리는 사)오정시  
장중도매인연합회 사무소 개소  
현판식에 참석.

중구 독거노인 대상 가구에  
희망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8일 대전 아너소사이어티(회장 이승호)로부터 희망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5억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 보증금과 TV, 침대와 가구 등을 지원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이승호 회장은 "훌륭 어르신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신 청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해주신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측에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올해 세 번째 바이오테크코리아 개최

市, 지역 유망 바이오社 14곳 참여… 홍보발표(IR) · 콘퍼런스 등 투자유치 열기 후끈

대전시는 28일과 29일 이틀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유망 바이오 기업과 함께하는 '2023년 제3회 바이오테크코리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초기 투자 단계 기업들의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이 보유한 주요 사업화 기술에

대한 홍보 발표 (IR: Investor Relations) 및 벤처투자자와 기업 간 개별 투자 면담, 바이오 주제 콘퍼런스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참여한 기업은 14개 사(社)로 ▲(주)밀알 ▲(주)유비크바이오 ▲(주)워즈컴 ▲로빈ICT ▲(주)칼리시 ▲(주)아이비스바이오 ▲(주)페라미드 ▲(주)사이키바이오텍 ▲(주)레보스케치 ▲(주)케이린 ▲(주)나노메디팜 ▲(주)인케니움테라퓨틱스 ▲셀라이온바이오메드(주) ▲(주)파멥신 등 지

역의 유망 바이오기업이다.

행사에는 ▲대덕벤처파트너스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투자파트너스 ▲신한벤처투자 등 다수의 바이오 전문 벤처투자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발표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했다.

최근 바이오 투자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네 번의 콘퍼런스도 함께 진행됐다.

장애인고용공단대전본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입력 사회공헌활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 본부(이하 공단)는 지난 27일 대전광역시립 산성종합복지관에 암리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특별관련대상자', '침입자들' 총 3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를 제작해 전달했다.

도서

입력

봉사는

시각장애인

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해

도서의

내용을

점자도서

규격에

맞춰

김태선

기자

퓨터로 입력하는 활동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43명의 인직원이 참여했다.

공단 김영근 대전지역본부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편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 사랑의 김장 나눔 위한 전달식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장장수) 이하 협의회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공장장 박남진), 미래신소재공장(공장장 신봉균)은 28일 오전 11시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을 위한 전달식을 시행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성구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과학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형 데이터 행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협의회로 기부된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 400kg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5곳으로 배분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따뜻한 밥상과 함께 제공된다.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은 고불 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힘든 상황에도 우리지역에 필요한 임직원 지원봉사, 후원금기부, 김치 등 후원물품 기부 등 나눔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송병배 기자



충남대병원 충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

## 제3회 희귀질환 바로 알기 캠페인

충남대학교병원 충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인한혁 센터장,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4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제3회 희귀질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원객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과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와 세종충남대병원 유전대사 클리닉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 참여자에게는 희귀질환 지원 사업 안내 및 충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 홍보물과 선물을 증정했다.

충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에서는 상담실 운영과 함께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정

서자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 강좌와 자조모임, 돌봄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해 권역 내 의료종사자 및 사업에 연계한 직군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한혁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비용과 접근성으로 인해 진료를 망설이는 환이가 적어지길 바란다"면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아들의 이픔을 공감하고 따뜻한 진료를 펼쳐 환아와 보호자가 우리 병원에서 마음을 위로 받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서철모 청장은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빈집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

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라고 말했다.

## 서구, 빈집 문제 해결 위한 적극행정 펼쳐

지속적 노력 끝에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이끌어내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중부권 최대 규모인 대전 중앙시장과 연계한 미식 관광 프로그램인 '화목한 동구 미식 여행'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화목한 동구 미식 여행'은 대전 중앙시장을 탐방하며 직접 구입한 재료로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동구의 식도락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다.

구는 미식여행 장소를 지역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편리하고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한 곳인 대전 중앙시장으로 선정했으며, 단순한 먹방 여행이 아닌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미식 관광을 진행해 참여자에게 미식 경험에 대한 교육과 재미를 선사할 예

정이다.

화목한 동구 미식 여행은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5회(회당 10명 내외)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속 정보부문(QR코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t;/div

●정정●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태 흠 충남  
도지사= 29일  
오전 10시 도  
의회 본회의  
장에서 열리  
는 제34회 도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석.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김자 철 충남  
도교육감= 29  
일 오전 10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3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사김정희선생 선양 서화전



최재구 예산군  
수= 29일 오  
후 3시 한국미  
술관에서 열  
리는 추사 김  
정희선생 선  
양 서화전에 참석.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



이용록 흥성군  
수= 29일 오  
전 9시 군수실  
에서 진행되  
는 흥주읍 성  
역사공원 경  
관조정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  
에 참석.

온실가스 배출량추이 분석

충남도는 29일 도청 6층 소회의실에  
서 '충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추이 분석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  
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실  
가스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해 배출량  
추이를 분석하고, 충남데이터포털 '온  
답'에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추  
진한다.

도내 산업구조는 석탄화력, 철강, 석  
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  
집된 보령, 태안, 당진은 2020년 지역내  
총생산(GDP) 기준 전기기사증기�이  
지역 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29%, 36.7%, 13.8%에 달한다.

도는 국내외 기후환경 이슈가 도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 시의성  
있는 온실가스 지표를 마련한다는 계  
획이다.

온실가스 국가통계는 작성기준연도  
의 2년 뒤에 확정·발표되는 만큼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최근 2년간의 추  
이는 도내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주요 배출원을 중심으로 추정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등 에너지원별 발전량,  
판매전력량, 석유·가스 사용량, 천환  
경기동차 등록대수, 소·폐지 사육두  
수 등 월간 데이터와 에너지소비사  
업자의 에너지사용량, 폐기물 발생·  
처리량, 배출면적 등 연간 데이터를  
수집해 월별, 연도별, 부문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추이를 분석한다.

2020년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국 배출량의 20.7%인 1억 4400만  
tCO2eq(이산화탄소 환산률)으로, 도내  
배출량의 62%는 전기·열 생산 부문  
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발전량은 10만  
7813GWh(기기운전시간), 도내 판매전력  
량은 5만 260GWh로 발전량의 절반 이  
상이 수도권 등 지역에 공급됐으며,  
도내 발전량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이다.

전승현 도 데이터담당관은 "이번 분  
석이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한  
탄소중립경제의 정책 기조지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종시 출범 후 10년간 소방 인력 350% 증가

## 빅데이터 활용 소방활동 분석... 구조·구급활동 꾸준히 증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출범한  
후 지난 10년간 소방 인력은 350%  
가 증가했고, 화재 발생은 2017년  
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한 반면, 구  
조와 구급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석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  
인 소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해 시 출범 후 10년간의 소방활  
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  
다.

이번 분석은 소방조직, 인력, 사  
고발생 위치, 현장 도착시간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취약 장소와 시간대, 시기별 구  
조·구급 유형 등을 파악해 효과  
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  
된다.

분석 결과 소방 인력은 2012년  
시 출범 당시 130명에서 2022년  
기준 585명으로 지난 10년간  
35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2012년 870명에서 2022년 656명  
으로 감소했다.

화재 발생은 시 출범 이후 꾸준  
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316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236건, 2019년 191건, 2020년 203  
건, 2021년 185건, 2022년 231건으  
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의 발  
화 장소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517건  
(21.6%)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  
택 308건(12.8%), 자동차 283건  
(11.8%), 공동주택 242건(10.1%)  
순으로 파악됐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가 1,239건

(51.7%)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은 575건(24.0%), 기계적 요인  
196건(8.2%), 미상 196건(8.2%) 순  
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한  
것에 비해 지난 10년간 구조와 구  
급활동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 출동건수는 2017년  
3,050건에서 2022년 4,468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구조건수는 2017  
년 2,457건에서 2022년 3,157건으  
로 증가했다. 구조인원은 2017년  
954명에서 2022년 895명으로 감  
소했다.

지난 6년간 구조건수는 화재  
5,058건(30.8%), 교통사고 4,217  
건(25.6%), 승강기 1,307건(7.9%),  
인명 간접 665건(4.0%) 순이었고,  
구조인원은 승강기 1,938명

(41.4%), 교통 사고 1,088건  
(23.2%) 순이다.

구조활동 유형으로는 별집제거,  
동물 출몰, 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정지 환자  
는 기울 오전에 가장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 소방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  
이고 행정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현 지능형도시과장은 "소  
방활동 분석 외 교통·복지·민원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도 빅데  
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  
정 우수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  
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국토정보공사 대전 세종 충남 본부, 노사간 담화 및 산업 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본부장 정철원)는 지난 27일 4분기 노사간 주요 안건과 직원들의 건강 및 사고 예방을 위  
한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정철원 본  
부장은 "노사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  
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부, 청년인턴 우수성과자 성과공유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성복영), 이하 대전 세종 중기청은 지난 27일 세종 코트  
아드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인턴 성과공유회'에 대전 세종 중기청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안  
전한 홍보를 통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중기부  
에서 근무한 우수 청년 국정  
홍보 및 청년정책 제언에 성과  
가 우수한 4명(팀)에 대해 장관  
상을 수여했다.

팀으로는 늘봄(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개인수상자로는 강민  
지(청년정책과), 정수연(소상공  
인재 도약과), 이선구(사이버경  
제추진단) 인턴 등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번 청년인턴 성과공유회는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그간 조직  
에서 수행한 업무실적 및 경험  
을 서로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근무희망  
지역, 전공 등을 고려해 28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했고 6개월 간  
공직을 체험했다. 체험한 공직  
분야로는 해외자료 조사·번역,  
언론보도 분석 및 정책홍보,  
주요정책 현황 통계, 기록물 관  
리 등이다.

아울러, 중기부 청년인턴은  
그동안 청년보좌역·지지체 간  
담화(6.23), 청년정책집 검회의(7.12, 2030자문단 상반기 활동  
집검회)(7.28), 2030자문단 분  
과 회의(8.17), 청년의 날 행사  
(9.14, 2023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10.31) 등에 참여해 적  
극적인 청년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송병배 기자

## 예산군, 2024년 상반기 예산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12월 1~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예산군은 2024년 상반기 예산  
형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 137명을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  
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95  
명

휴 수당 및 별도의 부대비가 제공  
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면서 군에 주소  
를 둔 군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

정 복지 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사  
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청 경제과 일자리 팀으로 문의하  
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형 공  
공 근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결과 '이상 무'

### 홍성군, 91개 수입 수산물 취급 상점·음식점 대상 실시

홍성군은 활찰듬과, 활가리비,  
활멍계 등 일본산 수입이 많은 수  
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군민의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  
소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91개 수입 수산  
물 취급 상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  
로 실시했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소비  
자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심하고 먹  
을 수 있는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59개 수입  
수산물 취급 상점 및 음식점을 대상  
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없었으며, 점검 기간 중 수

개 사업장에 137명의 근로자가 복  
지·안전·환경 등 분야 공공 일자리  
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는 137명의 근로자가 복  
지·안전·환경 등 분야 공공 일자리  
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형 공  
공 근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 섬김택시 76개 마을로 예산군 확대 운행 개시

### 신규운행 마을 14곳 추가... 2026년까지 120개로 확대

예산군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섬김 택시 운행 대상을 7  
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  
나인 섬김 택시를 2026년까지 순  
차적으로 120개 마을로 확대해 교  
통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  
통 복지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24개 마을에서 운  
행을 시작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예산 섬김 택시는 2019년 2  
만 4250건에서 2022년 3만 1365건  
으로 이용자 수가 폭증했으며, 7월

1일부터는 14개 마을을 신규 대상  
지로 추가해 총 76개 마을에서 섬  
김 택시를 운행 중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은 예산군  
을 2개소(산성1리, 수철리(드리니  
골))△대술면 3개소(화천2리, 화산  
리(등미), 화산리(곰우리))△신양면  
1개소(여래미리(안곡))△덕산면 4  
개소(시랑2리), 내리리, 옥계리, 둔1

리)△고덕면 2개소(몽곡1리, 상궁  
3리(하리부락))△신암면 1개소(예  
림2리(새마을마을))△오가면 1개  
소(내랑3리(독거 노인쉼터)) 등 총  
14개소다.

섬김 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읍면 소재지로 나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용료가 특징이며,  
운송 요금 중 나머지 차액은 '섬김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  
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보전한다.

섬김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76  
개 마을 주민은 예산군 섬김 택  
시에 전화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섬김 택시의 확대  
운행으로 버스 정류장이 먼 마을의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군민이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소외 지역을 적극 발굴해 섬김 택  
시 확대 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  
다.

예산=박제화 기자

## 중앙·세종 동시 2023 대통령 김장행사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7일 장군면 늘풀센터에서 정부 국민 대통

우리/동/네

## 천안시티FC 서포터즈 제피로스, 박남열 감독 교체설 큰 '반발'



천안도시공사, 2023년 임금협약

9차례 교섭 끝에 협약 체결…1월 1일 자 소급 적용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호)는 최근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과 8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2023년 임금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약내용은 노사 화합 및 상생을 위한 장려금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 감액률 하향조정 등이다.

임금협약은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해 적용되며, 공사는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관련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박철 위원장은 “공사 전환 이후 노사 상생 및 미래 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교섭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호 사장은 “노사가 협력해 임금협약 체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성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위해

### 중앙동에 김장김치 나눔

국제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세종·충남)구 천성라이온스클럽(회장 이상필)이 지난 27일 천안시 중앙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10kg) 20박스를 기탁했다.

이날 후원된 김장김치는 홀몸노인, 장애인 등 중앙동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천성라이온스클럽은 김장김치, 연탄 등의 물품후원뿐 아니라 노숙인을 위한 부료급식 봉사, 주거 취약가구 구입, 장애인 기구 기증제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필 회장은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문 동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리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성정2동 비르개살기위원회, 어려운 이웃 위해 리면 기부  
성정2동(동장 김구연)은 지난 27일 비르개살기위원회(위원장 이재훈)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리면 17상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리면은 성정2동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입장면 행복기금지원단 '다정한 다육이' 수료식  
천안시 불당2동(동장 박경화)은 28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홀몸 어르신 정서 안정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해 원에 지식을 배우고 꽃 화분을 만들며 심신안정의 시간을 가졌다.

### “언론보도 통해 감독 교체설 접해… 구단주 해명” 요구

천안시티FC가 성적부진으로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한 가운데 감독 교체설로 서포터즈들과 미칠을 빚고 있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티FC 공식 서포터즈 인 제피로스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FC 인양과 경기 직전 기사를 통해 박남열 감독 교체설을 접했다”며 “이로 인해 제피로스는 현장에서 서포팅에 임하기 전 이런 기사를 접하고 서포터주와 천안시민에게 많은 혼란을 줬고 경기력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보도된 기사가 사실이라면 구단의 인사권자인 박상돈 시장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피로스 관계자는 “제피로스



는 감독 교체설에 관해 기사로만 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와 같이 천안시 FC 인사권자인 구단주에게 감독인 사에 대한 교체설과 관련한 상세한 입장표명과 인사권에 대한 자세한 인사절차 공개, 기사에 언급된 내정자 박경훈, 천안

시 FC 이도영과 접촉한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며 공개 질의했다.

또한 제피로스는 “소중한 천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인사권 및 행정절차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돼야 한다. 구단주

는 천안시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 절대 외부세력에 의해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티FC는 지난 26일 ‘2023 시즌’ 최종전인 FC안양과의 경기에서 패하며 리그 끝자로 시즌을 마감했다.

한편 천안시 FC는 2008년 창단(천안시 청축구단 포함) 이후 1대 감독 장기문 2008년 성적부진으로 경질한 것을 비롯해 ▲2대 하재훈 감독(2009~2011년) ▲3대 김태수 2012~2013 ▲5대 김태영 감독(2020~2022년)이 성적부진으로 물려났고, 4대 감독인 당성중 감독(2004~2019년)만이 계약만료로 교체된 바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 통 정

#### 유치 결의대회



박상돈 천안시장  
= 29일 오후 1시25분 성환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리그 끝자로 시즌을 마감했다.



####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

##### 에서 크리스마스 즐겨보세요”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순은연말을 맞아 천안예술의전당 공연장 로비와 야외광장을 환하게 장식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연말연시 주요 기획공연에 앞서 공연장 로비에 5미터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나무와 야외광장 곳곳에 경관용 조명을 설치했다.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으로는 ▲2023 국립슬로바车联网미오니오케스트라 & 선우에권 ▲송년음악회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등이 준비돼있다.

관람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천안예술의전당 누리집([https://www.cnac.or.kr](http://www.cn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연이 일몰 후에 진행되는 만큼 공연장 주변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기 위해 크리스마스 나무와 경관조명을 설치했다”며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도시공사, 감사원

##### 자체감사심사 ‘최우수’ 표창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호)가 지난 24일 감사원이 개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실시 및 자체감사한 몬테스트’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한다. 대상기관의 업무성격 및 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분류, 상대평가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한다.

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법령위반 및 부정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독립성 강화 및 감사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초지방공기업 69개 기관 중 종합 1위 최우수(A등급)를 달성했다.

한동호 사장은 “기초지방공기업 중 종합 1위 최우수(A등급)를 받은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과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개소에서 가능하고 접종 기관은 천안시보건소와 예방접종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접종인 만큼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하여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만 12~17세 여성청소년(2005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이다).

접종은 천안시 위탁의료기관 94

### 천안시, 아름다운 납세문화 조성…‘성실납세자’ 선정

500명 추첨해 천안사랑카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지급

천안시는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하고 천안사랑카드 등의 혜택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우대·지원하고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정도희 천안시의장, 박정기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장, 강호정 기

료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려운 경

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을 통해 선진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접종인 만큼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하여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호 천안시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연수 결과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해

천안=김정환기자

### 천안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자원분석 공동연수’ 운영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대상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15~34세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접종대상은 만 12~17세 여성청소년(2005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이다).

접종은 천안시 위탁의료기관 94

### ‘사각지대 밭굴과 사례별 주민대화법’ 주제로

천안시 불당2동(동장 박경화)은 28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글로벌NLP코칭 이카데미 권종희 대표는 ‘사각지대 밭굴과 사례별 주민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공동연수는 지역의 기관·단체·주민이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모색

자원센터의 농촌마을자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연수 결과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해

천안=김정환기자

사각지대 밭굴과 지원 연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주시는 만큼 밭굴 된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 치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광고문의

(042)538-3030



**태안소방서, 유관기관 협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태안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손을 맞잡았다. 태안소방서와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지난 17일 충남 태안 삼봉해수욕장 애영지 일원을 선정해 협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소방서, 겨울철 대비 관서장 전통시장 현지확인**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 지난 27일 오전 강경대흥시장에서 화재 예방 안전의식 고취·안전사랑 당부를 위해 관서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산불진화통합훈련으로 산불 대응 체계 점검** 아산시는 지난 24일, 송악면 유곡리 봉곡사 일원에서 산불대비 초동 진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 주의보와 초속 15㎧의 강풍 등 산불 진화에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산림 연접 논에서 농업부산물 소각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봉곡사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새마을지도자대전동구삼성동협의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대전동구협의회(회장 이경원) 소속 삼성동협의회(회장 김태우)는 지난 25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성을 선정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배, 상판교체, 창틀페인트)를 실시했다.

**금산소방서, 하이트진로·생활 밀착형 홍보라벨 제작**

## '참이슬'과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참이슬 후레쉬' 소주에 소방정책 홍보 보조라벨을 부착해 시중에 유통 중이다.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한 이색 홍보를 준비했다.

11월에 생산되는 '참이슬 후레쉬' 15만 병에 불조심 강조의 달 등 소방정책 홍보 보조라벨을 부착해 대전·충청권 중심 일반용 식점에 배포 중이다.

진종현 서장은 "평소 접근하기 쉬운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국민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산소방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 긴급 구조 대책 마련 추진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 구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소방서에서는 ▲재난 대비 신속한 사전 비상 대응 체계 구축·▲겨울철 현장 활동 시 소방장비 100% 가동 상태 유지 ▲접근 곤란 지역·시설 등에 대한 출동 대비 ▲한랭 질환자 등 응급 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긴급 복구 지원 등이다. 박제희기자

# "현역 국회의원 중 22명 자질 의심"

## 경실련 자체 검증 결과... "내년 총선 공천에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22명을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체 자질검증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대상이 된 의원은 총 316명으로 여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들도 포함됐다.

자질검증 항목은 7가지로 ▲법안 대표발의 건수 저조 상위 10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사회적 불의로인한 제명·탈당·퇴직·사직자, 전과자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자 등이다.

이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의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3명(54.7%)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86명, 더불어민주당 83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22명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냈다.



▲경실련,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 22명을 살펴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상 5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

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명단이 바로 공천 배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각 당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 같은 검증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각 당에 ▲현

예 의원 평가·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공천 배제 예외규정 삭제 ▲하위 20% 이상 의원 공천 배제 등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기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혁신위원회, 종선기획단 구성 등을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지도부 입맛에 맞는 후보 줄 세우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은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 정당한 후보자가 나라이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적합 후보들에 대해 더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다음 달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정무수석보좌관  
의회 출석요구 부결

민주당 반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해 집행부 출석요구가 부결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부 출석 부결은 17개 시·도 역대 광역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 시킨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지사의 정무수석 보좌관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출석시키지 않고 감싸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이냐"며 "집행부 공무원의 도의회 출석을 거부는 김태호 충남도정의 2중대로 추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음 달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 당진소방서,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 각종 화재·재난안전체험 및 소방차량을 체험 가능



공간으로 나뉘어 ▲소방 관련 영상·포스터 전시 ▲구조·구급 장비 전시 ▲소방차량 및 헬기 체험 ▲화재·응급처치 교육·체험 ▲지진·태풍 체험 등이다.

접속 방법은 (PC버전) '소방청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누리집에 접속해 플랫폼을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버전) '구글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119 소방안전교육 메타버스'를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체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메타버스 소방안전교육은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시작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공간, 장비전시공간, 안전체험

당진=최근수기자

## 충남대병원 이경희 간호사 '대전시장상'

### 대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기여공로 인정…유공자 포상



호해왔다. 또한 2014년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알레르기 검사 전문가로 일하면서 알레르기 질환자 및 부모, 보호자에게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노력 을 인정받아 '2023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경희 간호사는 "앞으로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2023 유관순 바로알기 일환

## 교내 베데스다공원에서 '유관순 캐릭터 전시회'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유관순연구소는 12월 1일까지 교내 베데스다공원에서 '유관순 캐릭터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80여 점의 유관순 캐릭터가 전시됐다.

유관순 캐릭터 전시회는 '2023 유관순 바로알기' 사업의 하나로 12월 1일(수)부터 10월 6일(금)까지 충청남도 소재 초·중·고·대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일반시민, 개인으로 진행한 '2023년 유관순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공모전에서는 강보은 씨(20·여)가 '사라진 립선언문을 찾아라!', 이현화 씨(20·여)가 '왜별 도시 유관순'으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창의성, 작품성 및 완성도, 활용성 위주로 이뤄졌다. 이번 공모전과 전시회는 유관순 열사를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하고 MZ세대인 대학생과 지역 청소년이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과 자긍심을 다시 생기게 하고 느끼도록 돋고자 준비됐다.

백석대 유관순연구소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아카이빙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자금심, K-컬처의 뿌리 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적 존재인 유관순 열사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청양소방서, 운곡면 남·여 의용소방대 환경정화 활동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지난 27일, 운곡면 남·여 의용소방대원들이 운곡면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교장·교감 갑질 신고해도 10명 중 7명 처분 안 받아

시도별 편차 큰 것으로 나타나… ▲충북 91.7% ▲제주 88.8% ▲전북 84.6% 순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년~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71%(52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

도교육청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경체,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다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체해찰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을 차지했다. 경징계(감봉, 경체)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거나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고,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와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태안교육지원청, 장애 인권지원단 학교폭력예방 공연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은 지난 27일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지원단 학교폭력 예방 문화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공연은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습득하며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산교육지원청, 안전한겨울나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은 지난 23일 예산 마들렌 4층 회의실에서 2023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 교실 업무 담당자 배움 자리를 가졌다. 이는 학년말 및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 교실 업무 담당자를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21회 영재 교육원 수료식 개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석)은 지난 25일 건양대학교 경승관에서 제21회 영재 교육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교육 활동 영상 시청과 지도교사에 대한 감사인사 및 충실히 과정을 수료한 8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장을 전달했다.



천안여상, 인터랙트 봉사동아리 여성기족부 장관상수상!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신태규)는 지난 20일 2023년도 한국로타리주관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기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여 송가초 힐링 체험 송간초등학교(교장 강태정)는 27일 교내 과학실에서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로마 힐링 클래스'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 활동은 아로마 힐링이라는 주제로 나만의 향을 찾아 향수를 만들고, 입욕제를 만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재)아산시미래정책학회, 2024년 장학금·장학사업 예산 확정 (재)아산시미래정책학회(이사장 고삼숙)가 지난 27일, 제4차이사회를 통해 2024년 주요 사업계획·장학금 및 장학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장학금은 5억 8천여만 원이며 성적 우수, 특기, 희망, 다문화, 다자녀, 협·선행, 영재, 우수봉사 등 38개 부문, 총 500명에게 지급 예정이다.

## 세종시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예비소집 12월 27일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동시 실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24 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취학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취학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 입학 신청 이동(5세, 2018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취학통지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하여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2024학년도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2023년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도 동시에 실시된다.

구체적인 예비소집 장소 및 안내자료 등을 해당 초등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044-320-3225)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대선기자

## '2023 진로 탐색 위한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

공주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특수 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4일과 27일,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

24일에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천안 나사렛대학교를 방문하여 자립 재활학부의 학과 설명을 듣고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견학하며 대학 생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드림애틀 링지(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디퓨저 만들기, 카페 체험을 하며 일자리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27일에는 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대전 청소년위캔센터를 방문하여 캐릭터디자이너, 로봇프로그래머, 직업군인, 요리사, 건축가 등 8개의 직업체험관

에서 2회차에 걸쳐 체험에 참여하며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동훈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학령기 이후에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이 필요한데 이번 현장체험 학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충남교육청, 영재교육 활성화 위한 토크콘서트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담당자, 지도강사 대상…영재 교육 내실화 방안 논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아산에서 '영재 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영재교육원 운영 담당자와 영재교육 지도강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대전초등학교는 지난 24일(금)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연극 '마쓰와 신기한들'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대전초등학교 학교 자율특색교육과정 '책으로 꿈꾸는 우리들의 독서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서 문화 콘텐츠 체험 기회와 책 읽는 습관 험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마쓰와 신기한들'은 스위스 동화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주인공 마쓰가 신기한 둘을 소개되면서 펼쳐지는 흥미진한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환경보호, 물질 사회 부작용 등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관객이 참여하는 미니극 커다란 순무를 앞풀 이국으로 시작하여 무대와 각색의 경계를 없애고 관객이 연극의 주제가 되어 참여하는 열린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영재 교육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 영재교육연구센터 최수진 소장과 영재교육 운영 담당 장학사, 영재교양 강사, 초·중학교 시절 영재교육을 수료한 충남과학고등학교 대상 학생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영재 교육 내실화와 활성화에 관하여 고민한 부분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5차 영재 교육 흥미증합체제의 중점 추진사항과 교수 목표에 대한 논의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재 교육 내실화 지원 방안 등에 관해서도 진솔한 의견을 나

눴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정책 연구 담당자, 영재교양 지도 강사,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입장은 듣고, 영재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영재 교육대상자 지원에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논의된 사항을 내년 충남 영재 교육 추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관리에도 노력하여 영재 교육 내실화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2023학년도 가족 독서감상대회' 및 가족 책방나들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말에는 가족과 책방나들이 하고, 책으로 교감해요!"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은 '2023학년도 가족 독서감상대회'와 '2023학년도 가족 책방나들이'를 관내 초·중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독서 친화적인 가족문화 확산으로 지속적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학생·학부모의 독서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공동체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가족 책방나들이'는 가족 독서감상대회에 참가한 가족 전체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11월 19일(토) ~ 19일(일)과 11월 25일(토) ~ 26일(일)까지 약 2주 주말동안 동부 지역 서점 두 곳을 연계하여, 가족들이 서점을 방문 후 시상 등 급별로 제공되는 금액 상당의 도서와 무료 음료를 즐기며 책 읽는 문화를 가끼이하도록 운영하였다.

가족 책방나들이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시즌기인 아이와 석사시간 이외에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책을 함께 읽고 공통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아이와 오랜만에 단둘이 책방나들이를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독서교육은 책

읽는 즐거움을 이는 생애 독서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습관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책

을 읽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아이와 오랜만에 단둘이 책방나들이를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아산시미래정책학회, 2024년 장학금·장학사업 예산 확정 (재)아산시미래정책학회(이사장 고삼숙)가 지난 27일, 제4차이사회를 통해 2024년 주요 사업계획·장학금 및 장학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장학금은 5억 8천여만 원이며 성적 우수, 특기, 희망, 다문화, 다자녀, 협·선행, 영재, 우수봉사 등 38개 부문, 총 500명에게 지급 예정이다.

#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인 한자리

## 道, 차세대디스플레이 미래 과제 발굴 등 경쟁력 강화 위한 조찬 토론회

충남도 내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이 전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충남의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8일 아산시 모나밸리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해 서구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문성준 충남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기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인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환을 준비하고, 도내 디스플레이 관련 산·관·연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표정수여, 토론, 특강 및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재룡 실장은 "충남은 전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국내 매출의 과반을 책임지고 있다"며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경우 매출 액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디스플레이산업 거



접으로의 임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집적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산시가 대상지로 지정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역대 비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최대 규모인 9500억원이 투입되며, 도는 예타 통과 시 아산 평정테크노일반 산업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와 연계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 실장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60명 규모의 한국기술원 분원을 설치해 예타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부착형 디스플레이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수의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장형석 주동호테크 대표 △정유돈 신비엔텍 대표 △안재규 국보옵틱스 부장 △김태영 주에이 치비테크놀로지 팀장 △김정희 아산시 주무관 △김길희 충남테크노파크 연구원 △전시욱 한국광기술원 센터장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충남의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한 참석자들은 이상진 한국산업지능화 협회 혁신기획본부장의 '대전환시대! 비즈니스를 혁신하라'를 주제로 한 강연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유실장은 "민선 8기는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가 곧 충남발전과 국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육성에 매진하겠다"며 "충남이 디스플레이 메카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첨단화 방안 모색

### '서산시 미래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착수

충남 서산시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미래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 HD현대오일뱅크(주), 한화도달에너지스(주), (주)LG화학, 현대자동차(주), 현대건설(주), 현대트랜시스(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의 주제 방향을 공유하고 계획에 대한 자문과 사업 발굴을 위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 폐려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산=김정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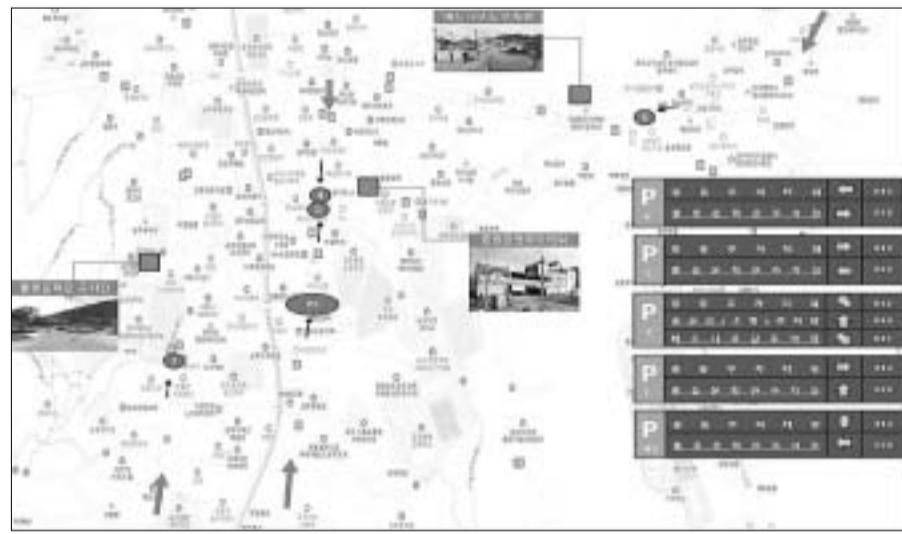


## 아산시 귀농귀촌협의회 한마음 대회 성료



## 공주시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공주형 스마트 주차장 구축

### 원도심 공영주차장 3곳 주차 정보 실시간 제공



시는 지난 2월 '2023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공모 선정 이후 행정절차와 전기통신공사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한다.

아산시는 지난 25일, 배방읍 로데오농원에서 '귀농귀촌협의회 한마음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산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권태호)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조일교 부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김강 행사가 함께 진행돼 이웃 사랑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조일교 아산부시장은 "귀농·촌인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산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랑주 기자

## '진로·취업·심리 통합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국립한밭대, 진짜 나를 만나는 상담, 심리안정 위한 식물 테라피도 운영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대학일자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심리 통합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직무 탐색과 취업준비에 심리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정서

## 당진시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 오는 12월 4일까지 전일제 35명 시간제 34명

당진시는 취업 죄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일제 35명과 시간제 34명 등 총 69명이며 신청 자격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자로, 신청자는 참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침에 따라 신청시경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는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36개 기관에 배치되어 1년간 행정업무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내년 정부보급종 벼 종자 신청·접수 중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는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에 제작할 정부보급종 벼 종자를 신청 받는다.

내년 아산시에 공급되는 종자는 조생종(1품종) ▲해답쌈, 중생종(6품종) ▲심광 ▲친들 ▲새일미 ▲안평 ▲침드림 ▲백옥찰 품종으로 총 7품종 12만 7500kg을 일반공급할 계획이다.

벼 농사에 있어 서 일 반 적 으로 5kg/10a(300평)의 종자가 소요되며, 종자신청 단위는 20kg/포이다. 또한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에 따라 농약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신청하는 모든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만 공급된다.

아산=리랑주기자

## 온누리상품권 300만원 후원·직접 담근 김치 대덕구장애인복지관 후원·김장 담그기 봉사

### 도공 대전충남본부 대덕구장애인복지관 상품권 300여 가정 전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박진원)는 지난 24일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300만 원 후원과 함께 김장 봉사를 진행했

다.

이날 봉사활동은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우리마을 김 장장 치" 행사에 참여해 약 1500kg의 김치를 담갔으며, 직접 담근 김치는 대전시 대덕구장애인 150여 가정에 전달됐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지속적으로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에 장애아동치료비 후원 및 무료급식비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

송병배기자



다.

2023년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은 공비죽미 수매가격 확정이 끝나는 2024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종자보급은 내년 1~3월 중 지역별 농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산=리랑주기자

## 동정

## 발전방안 포럼



오성환 당진시장  
=29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 공감 강연콘  
서트'에 참석, 오후 4시, 2층 중회의  
실에서 열리는 '(사)당진지역사회연  
구소 당진시 발전방안 포럼'에 참석.

## 양성과정 수료식



가세로 태안군수  
=29일 오후 4시  
태안군 교육문화  
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 문화교육  
사 양성과정 수료  
식'에 참석

## 투자 설명회



김돈곤 청양군수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구로디  
지털단지 엘컨벤  
션에서 열리는 한  
국산업단지경영  
자연협회 투자 설명회에 참석.

# '기본형 공익직불금' 236억 원 지급 완료

우/리/동/네

## 당진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만전

## 지난 20일까지 관내 17개 배수지 청소·소독 완료

당진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내 상수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배수지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완료했다.

당진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 배수지를 포함한 관내 17개 배수지에 대해 적수 및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정비하고 청소를 실시했다.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저수위 운영과 교번 운전을 진행해 청소로 인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내부 불순물 제거와 소독을 하고 각종 멘브 상태 및 수위 계작동 여부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함께했다.

또한, 아파트,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시설에 대해서도 청소와 수질검사를 진행토록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수돗물로 인한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태안군, 1만 472농가에 24일 지급...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 앞장

태안군이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군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1만 472농가에 총 236억 894만 1320만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

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농가 대상신청을 받았으며,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대상 농가를 확정짓고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최종 계좌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밸류·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경기불황과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태안=김정한기자

## 당진시 중대 재해 예방에 총력

## 산업안전 분야·채수현 민간전문가 위촉 등

당진시는 중대재해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채수현 공학박사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 실효성이 있는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2023년 한 해 당진시는 채수현 정책특별보좌관과 함께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경영 절차서 제작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

했다.

또한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등록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매뉴얼은 담당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했으며, 매뉴얼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담당자

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1조 6115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 편성

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첫 삽을 뜨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향정2도시개발사업은 중부권 최대 명품 신도시를 목표로 주거와 상업, 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에 산다'는 시민의 자부심이 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할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는 북부권 둔포 국민체육센터와 국교천 그라운드 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서부권 도고 스포츠타운과 선장축구센터, 선장 퍼크골프장 조성공사도 시작한다.

또 권역별 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배방북한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과 읍봉북합센터 도서관, 배방월천도서관을 내년 개관하고 서부권 공공도서관도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기 시장은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미래의 영광은 도전하고 준비하는 도시만이 누릴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며 시민을 향해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의회의 지혜와 합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아트밸리 100년 미래를 좌우할 트라이포트 아트밸리 개발이 2025년 제4차 향정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논리를 충분히 담은 계획과 현지실사 대응으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민선8기 초기부터 추진한 정책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아산의 출생아 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 기간 대비 11% 포인트 상승하면서 '전국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아산시민의 출산 친화 정책에 더해 소득 기준의 한계로 낮은 시술 지원을 못 냈던 부부들을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 출산 지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넷째, 중부권 거점도시로 아산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다운 도시'의 품격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도가 최종 승인한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연과 문화, 체육과 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고, '성웅 이순신축제'와 전국 최초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



## 정

## 공모사업 활성화 워크숍



최원철 공주시장=  
29일 오후 3시 30  
분 충남연구원에  
서 열리는 공모사  
업 활성화 워크숍  
에 참석.

## 뷰티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식



김동일 보령시장  
= 29일 오전 11시  
보령마드 테마파  
크에서 보령 마드  
뷰티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식 참석.

## 간부회의



이완석 서산시장=  
29일 오전 8시 40  
분 서산시청 시장  
실에서 열리는 간  
부회의 참석.

## 이웃사랑 물품 기탁식



박병인 금산군수=  
29일 오전 10시 30  
분 금산군청에서  
열리는 시민인권  
연맹 이웃사랑 물  
품 기탁식 참석.

연말 직장인 고향사랑기부제  
금산군 홍보 캠페인 박차

금산군은 연말 직장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12월은 연말정신에 관심이 높은 시  
기로 관내 공공기관, 기업 중 관외 거주 직  
장인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  
제 세액공제 및 단례품 혜택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에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찾아 임직원 대상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  
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지난 10월 고향  
사랑기부제 참여에 협력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시기 직장 근로자들이  
연말정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산군 고향  
사랑기부제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관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  
과 기부금의 30%에 한하는 단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금학동 지매결연도시  
아산시 송악면과 교류행사

공주시 금학동(동장 이철원)은 최근 송악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매결연 교류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양 기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 교류를 통  
해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새마을회 등 민간 차  
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축제 방문, 고향  
사랑기부금 상호기탁, 농촌일손돕기 등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을 도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철원 금학동장은 “공주시와 아산시는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생  
산적인 교류 효과가 기대된다. 양도시가 서로  
배울 점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시  
민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박현서 송악면장은 “이번 지매결연을 통  
해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우의를 돋  
우며 하여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김동일 시장, 오천면 주민들과 시민 온심통(溫心通) 행사

## 인공지능 반려로봇 보급 확대 등 건의 사항 전달



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주민들은 김 시장과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반려로봇 보급 확  
대,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농

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인공지능 반려로  
봇은 강원랜드 사회공헌단에 신  
청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4  
월부터 125명을 대상으로 배부했  
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 사회공헌단  
축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노인  
일자리 활동비 중 공의형은 27만  
원에서 7.5% 인상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59만4000원에서  
6.7% 인상된 63만4000원으로 인  
상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동  
대동에 신축 중인 대천농협 하나로

마트에 로컬푸드존이 운영될수 있  
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이며 계획한  
이 확정되면 24년 하반기에 농가분  
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 온심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현장  
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현장 소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심통은 ‘따뜻한 마음은  
통한다’라는 뜻으로, 평소 김 시장  
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애로  
사항을 정취하고 포옹시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1~2개  
월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서산시, 12월 15일까지 … “효율적 사업 운영 방안 모색”

충남 서산시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천수만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  
으로 겨울철새들의 인정적인 월동  
을 돋고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이  
다.

시는 점검반을 2개 팀 4명으로

구성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  
고, 계약을 미이행한 농가는 계약  
금액 환수 및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볏짚존치는 추수 시 생기는 낙  
곡과 벗짚을 활용해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무논  
조성은 천적을 피할 수 있도록  
들이 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

지 진행되며, 계약 기간 동안 논에  
깔린 벗짚과 무논을 유지해야 한  
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은 “천수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  
약사업은 서산시가 추진하는 생태  
보전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점검하고, 효  
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 우/리/동/네

## 공주시-국민권익위원회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현장서 시민 생활 속 불편·고충 민원 상담 해결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백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률 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상단제도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전문조사관이 직접 현장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충 민원이나 불편 사항 등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해 상담 예약 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예산군민, 청양군민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이므로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찬 바람 부는 겨울에 천북 굴구이가 최고”

## 제18회 보령 천북 굴축제

보령시는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양일간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에서 ‘제18회 천북 굴축제’를 개최한다.

천북 굴단지 산인회(회장 조행성)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천북면 지역에서 굴을 관광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뛰어난 맛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축제 개막식은 2일 오후 1시에 시작하며, 개막식에서는 굴 비빔밥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 시연 행사가 끝난 뒤에는 굴비빔밥 시식 행사를 통해 상상하고 먹기 좋은 천북 굴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초청기수 축하공연, 품바공연, 관객 노래자랑 등으로 굴의 풍미를 느끼면서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보령 9미 중 하나인 천북 굴은 칼슘, 철분, 구리 등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과 혈압 저하에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천북 굴은 구이를 비롯해 굴찜, 굴밥, 굴칼국수, 굴회무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

아울러 천북 장은리 굴단지는 예전부터 굴 구이로 유명한 곳으로 한해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겨울철 최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인근에 조성된 천북 굴따라길은 서해방길 62코스의 일부분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겨울 바다의 낙조를 보며 트레킹을 즐기기에 최적이다.

김동일 시장은 “천북 굴은 지금부터 내년 3월에 이르기까지 최고로 먹기 좋다”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천북 굴구이 단지에 오셔서 특별한 경험과 함께 싱싱한 굴도 맛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공주시-제3585부대 3대대, 드론 활용 업무 협약

## 드론 활용 군 작전 훈련 지원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제3585부대 3대대와 군 작전 훈련과 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지역의 통합 방위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제3585부대 3대대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정광훈 3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합 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작전 훈련 및 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대응을 통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통합 방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주시와 3 대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주시의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3번째로 큰 조경량비행장치 공연(드론진용비행구역)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현재 공주형 드론특화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금산군 산림재해예방센터 준공…초동 진화체계 구축

## 진화대원 배치 및 장비 점검 후 12월 초 본격 운영

금산군은 지난 27일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남일면 황풍리  
94에 신축한 산림재해예방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군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늘어나는 대형산불에 체계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사무실 및 진화대원 대기실이 마  
련된 주1동과 산불진화차의 보관

을 위한 부1동으로 이루어진 산림  
재해예방센터는 사원실과 대기실  
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겨울철 산불 진화차 등과 방지를  
위한 차고 등이 구비돼 진화 장비  
의 활용성을 높였다.

군은 산림재해예방센터에 진  
화대원을 배치하고 산불 진화 장  
비 점검을 마친 뒤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

다.

박병인 금산군수는 “산림재해예  
방센터 조성을 통해 산불재난 대응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 연락 체계와 대  
응 태세를 긴밀히 유지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이미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개별행위**  
기간 내 개별행위 변경 또는 준공검사 절차 이행  
예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해소 취소 등 처분

**산지전용**  
기간 내 준공검사 절차 이행/기간 연장 요청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  
공사 중 기간 만료(복구설계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가설건축물**  
존지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계속 존지시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

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KT&G, 국립법무병원 환자 및 의료진 등 위해 25년간 약 112억 원 기부

##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대통령 표창 수상



KT&G(대표 백복인)가 지난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올해 수상 단체 중 민간기업은 KT&G가 유일하다. 회사는 2018년에도 '법질서 준수 문화 확산 유공' 분야에서 대통령 표장을 수상한 바 있다.

KT&G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과 수용환자 치료 및 의료진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기부를 통해 노후기구 교체 및 주택 개보수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해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립법무병원의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부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원예치료시설과 원예작물 재배지를 조성해 환자와 간호 인력의 정서안정 향상에 기여했고, 시각·촉각 등 감각활동을 위한 '스노젤렌' 공간을 구

축해 환자들의 심신 안정을 도왔다.

이밖에도,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의 PC 및 프린터 등 IT장비 구매를 지원하며 학업 증진,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 보호대상자들의 의견 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5년 동안 법무부에 대한 꾸준한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사회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안전 보장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이 제3차(2024~2028)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안전보장 기본계획(안) 시민설명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장애인 및 관련 복지시설·단체·협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故 장동욱 교수 유족

목원대에 1000만원 기탁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는 지난달 20일 작고한 고(故) 장동욱 음악교과 명예교수의 유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장동욱 교수는 지난 1996년부터 목원대 음악대학과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대학원장과 학생처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 2019년 명예퇴직한 뒤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장동욱 교수의 유족이 목원대에 발전기금을 낸 것은 평소 고인의 모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평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고인은 자신이 몸담는 목원대와 제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했다고 한다.

장동욱 교수의 아내는 "발전기금이 목원대 발전과 인재 양성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남편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 같다"며 "남편이 애정을 쏟았던 대학에 남편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이희학 총장은 "장동욱 교수는 그 누구보다 제자와 대학을 아끼고 사랑했던 교육자였다"며 "장동욱 교수와 유족이 보내준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여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한국유교문화진흥원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기중)은 27일 본원(충남공주 소재)에서 충남지역 역사·문화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성재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2023 DOGO 온천 어워드' 성료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이사장 최낙원)가 지난 27일 오후 카페 영웨이브에서 진행된 2023 DOGO 온천상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중국 교류대학과 K-POP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순천향대(총장 강승우)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제4회 순천향 대학교내 K-POP 대회와 제16회 안후이성 순천향대학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양대 학군단, 2023 국방부 대학평가 '최우수' 선정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학군단(단장 이태희)이 2023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장교)학군단 설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다.

국방부는 매년 육·해·공군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군단 예산지원(200점), 우수 후보생 확보(250점), 교육훈련 지원(400점), 교육시설(150점) 등 대학의 학군단 지원 실태를 평가하는 학군단 설치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도 학군단 운영, 교육훈련, 모집 및 홍보 분야 등을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중단됐던 현장 평가가 올해 재개된 가운데 건양대 학군단은 대학의 학군단 지원, 우수 후보생 확보, 교육훈련 지원, 교육시설 분야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1,000점 만점에서 930점 이상을 획득해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학군단은 건양대를 포함해 전국 9개 대학(상위 5% 내부)에 선정됐다.

이정복기자

한밭대, 2023년 유성구 지역문제해결형 경진대회 성료 한밭대학 교(총장 오용준)는 지난 22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3년 유성구 지역문제해결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성구 대학협력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전공 및 응용지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지역 사회 혁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전세종기계 '백년기계·백년소공인 협판식' 개최 종소벤처 기업부 성능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난 28일 '2023 백년기계로 선정된 세종시 번암반점(대표 강영희)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세종시 천일사(대표 백미희)에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년기계·백년소공인 협판식」을 개최했다.

##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 공사 착수

대신수신청 20억 투입 모항 크루즈선 입항 접안시설 보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서산 모항 크루즈선(2024.5 취항 예정)'의 안전한 입항을 위해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 공사를 27일 착공했다.

서산시는 '23. 6월 롯데관광개발주파 '서산 모항 크루즈선'의 운항\*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대산신청에서도 전폭 지원(여객터미널 임

한 상황이다.

이에, 대신청은 20억원을 투입하여 여객부두의 방충재 20개소 교체, 계선주 7개소 신규 설치를 내년도 크루즈선 취항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신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공사를 안전하고 조속히 완료하여 '서산 모항 크루즈선'의 성공적인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힘전시 부스 운영으로 이뤄졌다.

김돈곤 군수는 환영사에서 "자연 재난이 많지 않았던 충남과 청양에서 2년 연속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청양지역은 농촌지역 특성상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속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 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도 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할 청양지역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청양군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 방향에 대한 영상소개 ▲그린 리더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업무협약 ▲군민과 함께하는 실천 다짐 공연(퍼포먼스)과 함께 자원순환 구역(Zone) 등 9개 체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 방향에 대한 영상소개 ▲그린 리더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업무협약 ▲군민과 함께하는 실천 다짐 공연(퍼포먼스)과 함께 자원순환 구역(Zone) 등 9개 체

청양=정상범기자

시장이 특별강의를 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별 실적, 과제발표와 성과물 전시, 학교 4-H 공연경진, 과제발표 경진 등 농업인 단체별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학습단체 회원들이 1년간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으며, ▲배지현(서울성신여자대학교) ▲전현진(충남대학교) ▲최원복(방송통신대학교) ▲심가흔(당진고등학교) ▲조다현(호서중학교) ▲이찬혁(정미초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도 수여했다.

또한 전시장에서는 품목별 농산물을 한 자리에 전시하고 우수농산물 품평회를 열어 당진시 우수 농산물을 홍보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국가철도공단 임직원, 사랑의 김장나눔으로 따뜻한 희망 전파

우리 농산물로 직접 담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에 전달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임직원들은 28일 본사에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

관, 자모원(미혼모보호시설)의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시행했다.

이날 철도공단은 직접 담근 860포기 김장을 기증해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며, 고산 절임배추, 강경, 절갈, 청양 고춧가루 등 김장을 재료로 국내 생산지와 대전 중앙시장에서 구입해 도농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송병배기자



우송정보대학 스포츠경호전공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현장견학 우송정보대학(총장이달영) 자율전공학부스 스포츠경호전공 전원이 27일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현장견학을 통해 기초체력과 전신반응시간검사와 동적평형성 측정기 및 시각반응시스템을 체험했다.



대전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사)한국창업기업가협회 업무협약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단장 안요한 교수)과 (사)한국창업기업가협회(회장 이호)는 28일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2층 Digital Innovation Cafe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밝혔다.



당진 영동사 떠들한이웃사랑 실천 당진 면천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영동사(주지 원정 스님)는 27일, 면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리며 신도들이 모은 합쌀(10kg) 50포를 기탁했다.



대전과기대, 신계초등학교 학생 초청 진로 탐색의 날 개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이하 대전과기대) 학생·취업자는 지난 24일 교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ESG 교육경기자체 실현의 일환으로 신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초청하여 진로탐색의 날을 가졌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나옹길 교수, 베트남방문해 의료봉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비뇨의학과 나옹길 교수(11월 20일(월)부터 5일간 베트남 광남성 텁키시 소재 '명화의 마을'을 찾아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1월 28일(화)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금산군지부, 리면 40박스 기탁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금산군지부(회장 김홍윤)는 지난 27일 금산군청을 찾아 100만 원 상당 리면 40박스를 기탁했다.

## 충남대, 지역 건설업 발전과 지역 경제 부흥 및 국가 산업 발전 기여

계룡건설산업㈜

## 한승구 회장에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충남대학교가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 건설업 발전과 지역 경제 부흥,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계룡건설산업㈜ 한승구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충남대는 28일 오전 11시,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이진숙 총장과 한승구 회장 등 내외 귀빈이 함께한 가운데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한승구 회장은 충남대 건축학과 졸업 후 계룡건설산업㈜에 재직하며 선진 공법을 적극 도입·적용하고, 이론과 실무 접목을 위한 연구와 건축 기술 개선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충청권 건설업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업체 교류 및 공동도급 등 다양한 협력·상생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기여는 물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충남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생태계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승구 회장은 충남대 건축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충남대와 한밭대에서 건축공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계룡건설 재직 중 경험한 다양한 건축이론과 실제 현장의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기여는 물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충남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진숙 총장은 축사를 통해 “충청권 건설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지역 산업발전의 견인차이신 한승구 회장님께 충남대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오늘의 명예경영학박사 학위가 한 회장님 개인의 영광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오늘 모교에서 이런 값진 영광을 주신 것은 충남대와 계룡건설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함께 나눈 열정에 대한 격려 이자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혁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영예를 기습 깊이 간직하고故 이인구 회장님의 ‘총대 사랑, 모교 사랑 정신’을 이어 100년을 향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충남대의 무궁한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물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충남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대전광역시 건설단체총연합회

장,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대

전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충남대 제 31대, 32대 총동창회장 등 다

양한 분야의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

역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에 앞장서고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적십자사, 충남개발공사와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

## 한남대학교 제18대 총장에 이승철 명예교수 선출



한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부대학장, 기획조정처장, 사회과학대학장, 시민문화·행정복지대학원장, 국방전략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평

기위원, 병무청 자체평가 심의위원, 육군·해군·합동 발전자문위원, 아테나워 학술교류회 회장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이 당선인은 독일 콘라드 아데

나워 재단과 다양한 세미나 및 협

력사업을 주관했으며, 독일 통일

직후 첫 총선 현황 참관과 동독지

역 시찰을 위한 독일 Konstanz대학

객원교수, 독일 함부르크대학 유럽

연구소 객원교수, 독일 콘라드 아

데나워 재단 조청 독일 베를린 도

시발전연구원 등 독일 행정 전문

가'로 다양한 국제 활동을 해왔다.

이 당선인은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대학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한마음이 중요하다”며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공동체와 혁신적인 소통을 통해 한남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 현대제철, 찾아가는 행복기움 교육 ‘공감’ 마무리

### 체험부스 마련해 퀴즈, 포토존, 간식차 등 다채로운 활동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8일 송산초등학교를 끝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복기움 교육 ‘공감’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공감’ 체험교육은 청소년들이

집합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환경

에서 일상생활 중 청소년에게 필요

한 주제를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마련된 교육 기부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당진교육

지원청에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

시복지재단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대제철은 2023

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2

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상당의 후원

을 통해 청소년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읍봉 강보식씨, 대한민국 과일산업 대전 ‘배’ 최우수상

### 영인면 송상현 농가(사과) 특별상 수상



아산시는 지난 24일, ‘2023년 대한민국 과일산업 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아산시 읍봉면 강보식 농가가 배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영인면 송상현 농가(사과)

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한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

대회는 다양한 과종·품종

의 우수한 대표 과일을 선발

하여 국산 과일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읍봉에서 38년째 배 농사

를 짓고 있는 강보식 씨는 GAP 인

증, 관수시설 및 지주시설 보강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

성 품종인 그린시스재배 및 보급

에 앞장서고 있다.

영인에서 2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송상현 씨는 디죽과원

조성 및 헛빛 치단망 일소피해저

감 시설 설치 등 신기술 투입으로

고품질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재

배포장은 시과재배·농업인의 현

장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아

산시 배, 사과의 우수성이 다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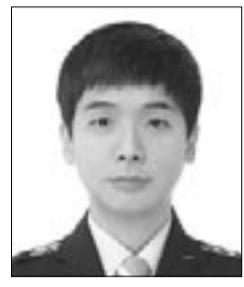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지원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제6기 산림복지 국민기자단 해단식 개최 28일 대전 서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에서 열린 ‘제6기 산림복지 국민기자단 해단식’에서 황성태(앞줄 가운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과 산림복지 국민기자단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고



김 성 엽  
아산소방서 예방인전과 소방장

겨울이 실감 나는 요즘 날씨다. 가을의 적당한 추위가 지겹다면서 코찡한 추위를 원한다고 징징대던 내가 후회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집을 나서며 느껴지는 겨울 아침의

## 겨울철 주유소 안전 점검

구수한 탄내 섞인 차가운 냄새는 일년 내내 그리워하던 그 감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보이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춥다고 해도 겨울철 주유소 내에 흡연은 아주 큰 위험이 따르기에 조심해야 한다.

주유할 때도 항상 주의하며 기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문제다. 최근 운리인을 달군 JTBC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주유소 비로 앞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손님을 사장님이 목격해 나가서 담배 피울 것을 권유했지만 흡연자는 이랑듯하지 않고 꽉 언까지 퍼붓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 사장은 곧바로 흡연자를 신고했으나 주유소는 금연구역도 아니며 방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처럼 법 개정이 필요해지자 주유소 흡연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들이 제출되어 입법 진행 중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에서는 리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 사용이 금지되는 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소방청은 향후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또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사설

## 학교 밖 청소년 법적 지원책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20만~3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를 가운데 홀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진학, 조기 유학도 있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한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자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주력하지만 학교를 자퇴하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은 여성 가족부로 넘어간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책이나 보호책은 거의 없는 셈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이런 점을 인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를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교육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상담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가정과 사회의 올타리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학생 맞춤통합지원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인정해 주고 이들의 든든한 보호막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5만 2천 981명으로 전체 학생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 김용현 법학박사의 생활속 법, 또는 우리들 이야기



김용현 시인  
(법학박사·전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흑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이 구상성단이 늙은 별의 집단이기 때문에 별의 탄생과 관련 있는 암흑대가 구상성단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상성단의 조석작용(潮汐)은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에 의해 지구의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은 구상성단이 커다란 질량 끊어리(예컨대 은하 중심부 등)와 우연히 만날 때 질량 끊어리에서 가장 가까운 성단부분과 가장 먼 성단 부분 사이의 중력 차이로 인해 조석력이 발생하고, 구상성단의 궤도가 은하 평면을 통과할 경우 '조석 충격(tidal shock)'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성단을 구성하던 별들은 바깥으로 흩어지듯 떨어져 버리고 성단 중심 부분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조석작용은 성단에서 수도隧道(degrees of arg)에 해당하는 별의 꼬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꼬리는 성단 궤도를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성단의 원래

질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땅에 놓을 수도 있다.

조석작용은 그 성질 때문에 구상성단에 운동에너지지를 더해주고, 성단의 증발률을 국도로 높여 성단의 크기가 쪼그라들게 만들며, 이 조석작용으로 인해 성단 바깥쪽의 별들이 벗겨져 나갈 뿐 아니라 증발률을 높인으로써 중심 붕괴과정을 가속화시킨다. 이와 유사한 작용이 왜소구형은하(矮小球形銀河, dwarf spheroidal galaxy, dSph)는 천문학에서 우리 은하와 유사한 계류인 안드로메다銀河의 동반 은하들과 같은 낮은 광도의 은하들을 표현하는 단어에서도 일어나는데, 예컨대 궁수자리 '왜소은하'는 '우리 은하'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 조석적 붕괴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상성단 안에서는 별들끼리의 근접 조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행성계가 교란되어 일부는 모향성母恒星에서 떨어져 나와 '떠돌이 행성'이 된다. 모향성에 가

까운 행성도 궤도가 교란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궤도 간섭, 이심률 증가, 조석 효과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로 구상성단과 비교되는 성단이 산개성단인바, 구상성단은 수만~수백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밀집한 성단으로서 별의 개수가 많고 밝으며, 나이 많은 별들의 집단으로 붉은색이지만, 산개성단은 수십~수백 개의 별들이 산만하게 모여 있는 성단으로 구상성단보다 별의 개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구상성단보다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름날 마당에 맹석을 깔고 하늘을 보며, 천구(天球)의 밝은 별을 중심으로 지구에서 보이는 모습에 따라 이어서 어떤 사물을 연상하도록 이름을 붙인 추억도 있지만, 이 별 자리(constellation) 또는 성좌(星座)는 문화권별로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지기도 하지만, 현재는 1930년 국제천문연맹(IAU)에서 정한 88개의 별자리가 공통으로 쓰이고 있다. (법학박사·시인)

## '충남도 혁신사례' 전국서 주목

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서 예산시장 혁신사례 소개

충남도는 예산군과 함께 이뤄낸 '예산시장 혁신사례'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민관협력 성공사례로 꽂혔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예산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예산시장 혁신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람회에서 대표 혁신사례로 소개한 '함께 만드는 기적, 충남 예산시장'은 똑똑한 정부의 우수사례로, 전문인력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관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전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로 떠오른 예산전시장은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엠지(MZ)세대와 7080세대를 아우르는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 높은 가성비를 겸비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대전투데이

16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